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 공기업 중 가장 빛났다

공기업 유일 中企협의체 10년 유지
270여 건 국산화 개발 적극 지원
워라밸 실현 등 노사상생에 방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지난 2018년 열린 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 성과발표회 모습.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동서발전의 다양한 상생 경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업 최초로 10년간 중소기업협의체를 유지하며 협력기관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협의체 10주년

동서발전이 지난 2008년 중소기업과의 소통확대를 위해 구축한 중소기업 협의체가 지난 15일 10주년을 맞이했다. 2018년말 현재 85개사가 참여하고 협의체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들 매출이 10년간 매년 평균 매출액이 20% 가량 향상됐다. 특히, 해외수출은 약 800억원에서 현재는 4000억원으로 약 5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발족과 동시에 선출직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구성되고 동서발전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 함께 노력해 왔다.

초창기의 애로사항은 발전설비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와 외산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있었다. 동서발전은 발전소 실무담당자들과 중소기업 간 1:1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발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화개발 확대를 위해 외산 기자재 구매품 목록을 제공했다. 또 퇴직직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할 수 있는 제도도 발굴해 시행해왔다.

협의체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국내외 100회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270여 건의 적극적인 국산화 개발을 지원했다"며 "개발된 시제품들을 동서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설비에 직접 적용하여 실증시험하는 등의 노력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에너지플러스시티 추진

동서발전은 지난해 9월 울산광역시와 에너지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상생모델인 '에너지플러스시티(e+ City)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사업 중심의 산업육성(e-Clean City)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창업(Start City)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Inno. City)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공유가치 창출(CSV) 등 4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울산지역에 총 8조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울산시가 '에너지신사업의 경제수도'로 재도약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서발전은 동서발전형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로 정의하고,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변화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정의했다.

에너지 회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청년 교육 및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교통약자와 소외계층 복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노사합의 통한 장시간 근로개선

지난 14일 동서발전 노사는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합의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동서발전은 그동안 노동존중, 기업문화 혁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해 이번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통해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앞당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한국동서발전 사옥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15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을 대상으로 '수하물 처리시설 운영 노하우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公 탄자니아에 '공항 운영 노하우' 전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15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가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인 '수하물 처리시설(Baggage Handling System, BHS) 운영 노하우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 1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생들은 인천공항의 수하물 처리시설 운영노하우 학습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OJT(On-the-Job Training) 교육 등을 학습했다.

탄자니아 공항청(Tanzania Airport Authority, TAA)은 다르에스살람 국제공항 등 탄자니아 내 58개의 공항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은 최근 공항 확장 및 신규 터미널 오픈 계획에 따라 공항 운영 효율화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하물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운영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근로복지공단 오창産團에 中企어린이집 개원

근로복지공단은 청주시와 공동으로 오창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정원 158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5개사가 공동으로 노동자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지난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입주 노동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15억5000만원과 매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1억원의 재정지원을, 청주시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한편,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총86개 컨소시엄을 지원사업자로 선정, 개원한 5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생산성본부, 대전서 4차산업혁명 대응 나선다

대전테크노파크와 혁신산업 MOU

한국생산성본부와 대전테크노파크가 지역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는 대전테크노파크와 '지역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대전 지역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사업 발굴, 연구·조사를 비롯해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자격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경영체제(PMS)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AI, 빅데이터 등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대전 지역은 특히 연구소나 첨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해 대전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농진청 "자체 개발 '우리 술 12종' 만나세요"

아황주·녹파주·탄산막걸리 등

다채로운 우리 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 한 우리 술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위취한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시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전시 기간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한 전통주 2종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탄산막걸리 등 모두 12종의 제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음회도 진행한다.

이 중 '아황주'와 '녹파주'는 농진청의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한 전통주로 조선시대 요리책인 산가요록(山家要錄) 등 옛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통 술이다.

또한, 누룩 유래 토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빚은 한국형 청주와 증류식 소주, 쌀을 활용한 쌀맥주, 무독화 옻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고품질 와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 술 시음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시간 열리며 평일에는 저녁 7시에도 추가로 진행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중진공

중소·벤처 판로개척 지원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 28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작년 온라인 수출플랫폼 사업을 통해 총 1200개사를 지원해 5000만 불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중국 알리바바그룹 티몰(Tmall), 베트남 국영 VTV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